

환희와 침통의 갈림길...한국 '아쉬운 4위' 많았다



전진화

메달 문턱에서 멈춰선 선수들
도쿄올림픽 4위 12개로 전체 4위
불굴의 투혼 보여주며 감동 선사
개인 메달선 3관왕 안산 공동 4위

8일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메달 순위 종합 16위에 올랐다.

메달 순위로는 1976년 몬트리올 대회 19위(금1·은1·동4), 2000년 시드니 대회 12위(금8·은10·동10)에 이어 10위 내에 들지 못한 결과가 됐다.

그러나 이번 대회 결과를 두고 우리나라의 부진한 성적에 대한 비판보다는 전 세계 선수들의 투혼과 멋진 경기력에 감동했다는 반응이 언론이나 네티즌들 사이에서 주류를 이룬다.

예전처럼 메달 획득 여부에 큰 관심을 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힘을 얻는다.

그런 흐름에 발맞춰 이번 대회에서는 메달 직전에서 멈춰선 '4위'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컸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특히 김연경이 이끈 여자 배구를 비롯해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다이빙 남자 우하람, 배드민턴 여자 복식 이소희-신승찬, 근대5종 정진화 등 '감동의 4위'들이 많이 나와 이들을 지켜본 팬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조금만 더 해서 메달을 땀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신승찬(앞)과 이소희

영국 BBC가 9일 보도한 이번 대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총 12개의 '4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BBC는 4위에 대해 "4위는 황홀과 침통의 갈림길"이라며 "최다 4위 부문 상위권은 씩 달갑지 않은 순위"라고 표현했다.

이번 대회 최다 4위 부문 순위를 보면 미국이 26개의 '4위'로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러시아올림픽위원회(15개), 영국(14개) 순으로 이었으며 4위



우하람

가 바로 한국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이번 대회 금메달 39개로 메달 순위에서도 종합 1위를 차지한 나라이고, 러시아올림픽위원회와 영국도 금메달 20개 이상을 따내 메달 순위 5위 안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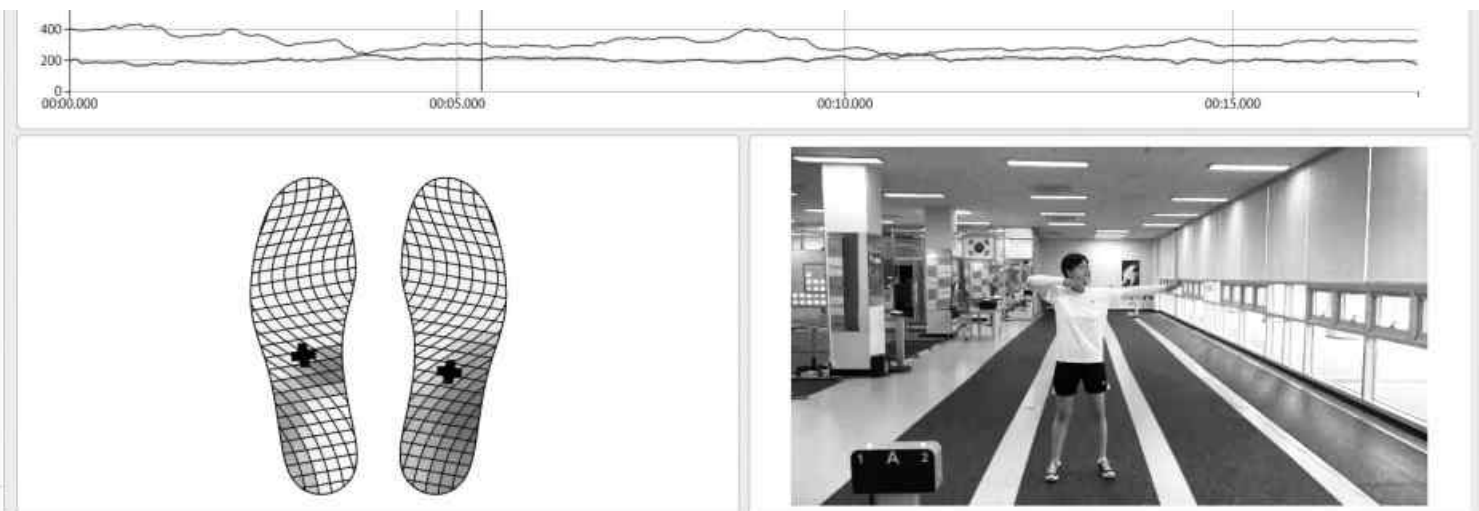
'4위' 부문 1~3위 국가들은 메달 수가 워낙 많아 4위도 자연스럽게 많은 결과로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메달 순위는 16위지만 유독 '4위' 순위는 4위로 상위권에 오른 셈이다.

국가별 순위가 아닌 개인 메달 순위로는 5관왕에 오른 수영 케일리 트레슬(미국)이 1위에 올랐고 수영 엠마 매किन(호주)이 금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2위다.

역시 호주 수영 선수 케일리 맥케이언이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로 3위, 우리나라 하계 올림픽 사상 최초의 단일 대회 3관왕 안산은 금메달 3개로 자메이카 육상 선수 일레인 톱슨, 뉴질랜드 카누 선수 리사 캐링턴과 함께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안산, 광주체고 시절 평발 통증으로 고통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 발목 재활·코어운동 등 지원 성과



광주체고 재학시절 스포츠과학연구소의 족저압력 검사를 받고 있는 안산. 왼쪽은 족저압력 검사 결과.

〈광주시체육회 제공〉

안세영·강영미 등 체계적 관리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20·광주여대)은 평발이다. 광주체육고 재학 시절 평발로 인한 발바닥 통증 때문에 훈련·경기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연구소)는 안산의 고민과 고통을 덜어줬다. 연구소는 당시 광주체고 감독이었던 송철석(도쿄올림픽 양궁 코치) 교사와 함께 체력측정 및 족저압 검사, 무선 근전도 검사, 영상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신발 깔창(인솔, insole) 제작을 지원했다.

한국 양궁대표팀 국가대표 박세준 감독은 "안산은 대표팀 훈련 중에도 평발로 인한 통증이 심

해서 발목 재활과 코어운동을 집중적으로 했다"면서 "스포츠과학 지원과 안산 선수의 열정, 기업의 체계적 지원 등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른쪽의 미래 안세영(19·삼성생명)도 광주체육중·고 재학부터 체력측정 및 컨디셔닝 지원과 심층심리 분석을 통한 멘탈훈련을 지원받았다.

펜싱 은메달리스트 강영미(서구청)는 부상회복에 대한 컨디셔닝 관리, 투수 이의리(KIA 타이거즈)는 광주일고 재학 중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지원받았다.

다이빙 선수 권하람(광주시체육회)은 체력측정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문훈련을 지원받고 올림픽에 출전했다. 강경민·원선필(핸드볼,

광주도시공사)도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과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훈련을 지원받았다.

연구소는 지난해 광주시와 시의회의 전폭적 지원으로 전국 최초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과학센터의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상 및 전문훈련까지 지원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혁신위원회 우수 모델로도 인정받았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광주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했다"며 "시체육회는 현장과 소통하며 스포츠과학 선도 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값진 4위' 일병 우상혁 포상 휴가 간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일병' 우상혁(25·국군체육부대·사진)이 조만간 포상 휴가를 갈 전망이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우상혁에 대한 휴가 등 포상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휘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특별휴가)에 따라 포상 휴가 지급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휴가 일수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우상혁은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5를 넘어 4위를 차지했다.

4위는 한국 육상 트랙&필드 최고 성적이고, 2m 35는 한국 높이뛰기 신기록이다.

특히 우상혁은 결과와 무관하게 시종일관 파이팅 넘치는 기합과 밝은 표정으로 경기에 임해 '메달보다 더한 감동'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병역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동메달을 아깝



게 놓치고도 오히려 "군대에서 배운 게 많다"고 주저 없이 답하는가 하면, 절도 있는 '거수경례'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편, 군인 신분으로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및 코

치진은 우상혁을 비롯해 사격 김보세(일병), 배스볼(중사), 축구 박지수(일병), 럭비 서천오 감독(전문군무경력관) 등 총 5명이다. 모두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부대 측은 우상혁 외에 다른 '부대원'들에 대한 포상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 국방부 장관은 5명 모두에게 축전과 선물을 보내 격려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NBA 돈치치, 델러스와 5년 더...2374억에 계약

미국프로농구(NBA) 델러스 매버릭스의 '슈퍼스타' 루카 돈치치(22·슬로베니아)가 초대형 연장 계약을 맺고 팀에 남는다.

미국 ESPN은 9일(현지시간) 에이전트 빌 더피의 말을 인용해 "돈치치가 5년에 2억700만달러(약 2374억3000만원)를 받는 '슈퍼맥스' 루카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2살의 나이에 NBA 간판선수가 된 돈치치의 이번 계약은 역대 루카 연장 계약 최대 규모다.

더피는 돈치치가 계약 마지막 해에 플레이어 옵션(팀과의 계약 연장·종료)을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10일 슬로베니아에서 계약서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8 NBA 신인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애틀랜타 호크스에 지명된 돈치치는 선발 직후 델러스로 보내져 첫 시즌부터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다.

데뷔 첫해 '올해의 신인상'을 거머쥔 데 이어 최근 두 시즌 연속으로 올-NBA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시즌에는 정규리그 66경기에서 27.7득점 8.0리바운드 8.6어시스트를 올렸고, 플레이오프 7경기에 출전해 35.7득점 7.9리바운드 10.3어시스트로 활약했다. 돈치치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맡아 슬로베니아의 4강 진출에 앞장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싱크홀 |
| 2관 | 모가디슈 |
| 3관 | 싱크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
| 4관 | 싱크홀 |
| 5관 | 싱크홀 |
| 6관 | 모가디슈 |
| 9관 | 프리 가이 |
| 7관 씨네커튼 | 보스 베이비 2, 블랙 위도우,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신공룡 더 그레이트 샤쿠 |
| 8관 씨네커튼 | 모가디슈, 방법: 재차의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8. 21.(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즐거움
문화산책